



'8자스윙' 짐 퓨릭 짜릿한 역전 우승

PGA 캐나다오픈 최종

‘8자 스윙’ 짐 퓨릭(미국·사진)이 짜릿한 역전승으로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두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6위로 출발한 퓨릭은 11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앵커스터의 해밀턴골프장(파70·6천946야드)에서 열린 캐나다오픈 4라운드에서 5연승을 몰아치며 합계 14언더파 266타로 우승했다.

마지막 라운드 5언더 몰아쳐 2타차 선두 제치고 시즌2승

바트 브라이언트(미국)가 3타를 줄이며 막판까지 추격했으나 1타 뒤진 13언더파 267타로 준우승에 그쳤다. 손 오해어(미국)는 12언더파 268타로 3위.
이로써 퓨릭은 와코비아챔피언십을 포함해 시즌 2승과 통산 12승을 달성했고 90만달러를 쟁취 삼금 랭킹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전반에 버디 3개, 보기 1개로 추격을 시작한 퓨릭은 10번홀(파4)에서 6m 짜리 버디 퍼팅을 떨구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13번홀(파3)에서도 버디를 보며 승기를 잡았다.
브라이언트와 오해어가 막판 추격에 나섰지만 퓨릭은 17번홀(파5)에서 2온-2퍼트로 버디를 낚아 클럽하우스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렸던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는 공동 14위로 처졌다.

18세 김송희·박인비 내년 LPGA서 똰다

전경기 출전권 획득
신인왕에 강력 도전

한국 선수들의 독무대로 변신하고 있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내년 시즌에도 강력한 한국인 신인왕 후보를 맞이하게 됐다.
11일(한국시간) 시즌 최종전인 일로베니 챔피언십을 마친 LPGA 2부투어인 퓨처스투어에서 김송희(18·대원외고)는 시즌 삼금 7만6천287달러로 삼금왕에 올랐다.
국가대표 출신 김송희는 이로써 내년 전 경기 출전권을 획득, LPGA 투어 '코리언 군단'에 새로운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퓨처스투어 한국인 삼금왕은 1999년 박지은(27·나이키골프), 2004년 강지민(26·CJ), 그리고 지난해 이선화(20·CJ)에 이어 네 번째이며 특히 최근 3시즌 연속 한국인 삼금왕 1위가 탄생했다.
김송희는 작년 11월 퓨처스투어 필리파인

스를 수석으로 합격했지만 만 18세가 되어 투어에서 뛸 수 있다는 규정에 걸려 프로 전향이 어렵게 되자 탄원서를 제출한 끝에 가까스로 출전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루이지애나클래식에서 만1세 10개월24일의 나이로 우승을 차지해 퓨처스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무려 5승을 거둬 일찌감치 삼금왕을 예약했다.
중학생 때 미국으로 골프유학을 떠나 아마추어 무대를 휩쓸었던 박인비(18)도 시즌 삼금 3위(4만9천79달러)를 확실히 LPGA 투어 진출을 이뤘다.
브라질 교포 출신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앤젤라 박(18)은 삼금랭킹 8위(3만4천861달러)로 밀려 5위까지 주어지는 내년 LPGA 투어 전 경기 출전권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퓨처스투어는 삼금랭킹 1~5위에 이듬해 LPGA 투어 전 경기 출전권을 부여하고 6위~15위 선수에게는 조건부 출전권과 함께 필리파인스를 예선을 면제해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남자하키대표팀의 장중현(왼쪽)이 11일 독일 뮌헨그라드버히에서 열린 제11회 세계 남자월드컵선수권대회에서 남아공의 한 선수와 공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만기씨 “징계철회 없으면 장사 반납”

이만기(43·사진) 인재대 교수와 민속씨름 동우회가 이 교수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장사 타이틀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만기 교수와 그가 회장을 맡고 있는 민속씨름동우회는 11일 중구 장충동 태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한국씨름연맹이 내린 이만기 교수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장사 타이틀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징계의 당사자인 이만기 교수도 연맹 징계에 반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 시간 현재까지 연맹은 상벌위원회 결과를 내지 못했고, 업무상 상벌위 징계에 대한 당사자 제삼 청구라는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리 그 결



으로 대응했다.
민병관 씨름연맹 홍보사업장은 “지난 6일 징계 내용을 인재대 사회체육과로 보냈다가 7일 해당 학과 박 모 조교가 이를 수령해 교수 사물관함에 넣어 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과를 언론에 알림으로써 생긴 명예 훼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한국씨름연맹측은 이같은 이만기씨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

한국, 남아공과 비겨 세계 남자월드컵하키선수권

한국 남자하키대표팀이 제11회 세계 남자월드컵선수권대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비겼다.
한국은 11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뮌헨 그라드버히에서 열린 대회 5일째 예선 B조 남아공(2루1패)과 경기에서 2-2로 비겨 2승1무가 됐다. 한국은 전반 21분 얼은 페널티코너를 장중현(조선대)이 골로 연결, 1-0으로 앞서 나갔다.
후반 14분 동점골을 내준 한국은 1분 만에 유희식(상무)의 골로 2-1을 만들었으나 경기 종료 11분을 남기고 다시 동점을 허용했다. 독일과 함께 2승1무를 기록 중인 한국은 11일 밤 11시 인도와 4차전을 갖는다.

유선영 5언더 5위 크리스티 커 우승

LPGA 존큐해먼스호텔클래스 최종

크리스티 커(미국)가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제치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존큐해먼스호텔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커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시의 시다리지골프장(파71·6천60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3라운드 합계 14언더파 199타로 소렌스탐(201타)을 2타차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커의 분발로 한국 군단의 시즌 10승도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한국 선수 중에는 '루키' 유선영(20·사진)이 합계 5언더파 208타로 공동 5위에 올라 최고 성적을 냈다.
LPGA 2부투어인 퓨처스투어에서 활약하다가 올해 정규 투어 무대에 진출한 유선영은 이번 시즌 21경기에 출전해 지난 8월 캐나다오픈에 이어 두 번째로 톱10 입상의 성적을 거뒀다.
이마나(25·KTF)는 합계 4언더파 209타로 공동 7위에 올랐고 재미교포 김하나(23)는 합계 2언더파 211타로 공동 17위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리그 발전계획 아이디어 받습니다”

15일부터 30일까지 접수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이후 안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가 ‘아웃소싱’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K-리그 운영 주체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국내외의 스포츠 컨설팅 실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리그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공모한다.
연맹은 선정된 업체 또는 연구소, 개

인, 컨소시엄과 함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내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짜겠다는 복안이다. 선정 작업은 서류심사 후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아웃소싱은 효율 극대화를 위해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맹이 아웃소싱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출범 24년째를 맞아 어느덧 선령을 훌쩍 넘긴 프로축구가 여전히 팬들의 열기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12일(화)
▲메이저리그(시카고W-LA에인절스) (10 : 55·Xsports)
▲N-리그(수원-부산) (15 : 00·KBS SKY Sports)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 (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KIA-삼성) (18 : 00·KBS SKY Sports), (18 : 30·MBC ESPN)
13일(수)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1차전(아인트호벤-리버풀) (03 : 30·MBC ESPN)
▲세계 여자농구선수권(한국-스페인) (00 : 50·SBS스포츠)

건물매도

모든업종 최고요지

위치
●광주시 동구 대동동 39-1(동부서원)

대지
●136평 건평 590평 (자해충,시상충)

매도가 협의결정

—연락처—
010-4610-3763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21-1140, 210, 211-602-2532 (광주모동 신복동, 대인동 신복동-2구) 24시간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내 대출을 내고 싶으시거나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회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매업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다면 저회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회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 (02)294-8216, 210, 211-609-0366 (중구동우회부근)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 종로로 대지 60평 4층건물 28억
- 충정로 대지 110평 4층 27억
- 구남로 도림동 70평 20억
- 영남동 중앙시장 30평 170만
- 남동 대지 26평 3층건물 2억
- 남동동 아베빌빌 대지 330평 2550만
- 광화문 타미빌 대지 290평 1750만
- 신규지구 상점지 1200평 4천200만
- 주원동 광이파르빌 대지 250만
- 홍성동 삼아파르빌 대지 250만
- 영남동 3군도 대지 2000평 한식당 150만
- 충정동 전월영알 대지 1800평 3850만
- 한남 우산동 상점지 220평 9억
- 한남동 아파르빌빌 6층건물 27억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 지산동 보전부지 1천평 2850만(주말거)
- 영남동 대지 280평 1억400만
- 영남동 보전부지 2천400평 1억800만 (주말거 900만)
- 광주 동안근대지, 전 6채월 주택 1550만
- 회선 동구 관파지역 안아 3천평 250만
- 회선 서울 원지역 8채월 주택 1억 1천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4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5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6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7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8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9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1만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1만1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1만2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1만3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1만4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1만5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1만6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1만7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1만8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1만9천평 250만
- 회선 서울 관파지역 안아 2만평 250만

☎ 광주인근 관파지역 안아, 전 100평

LCE타워(주)

☎ (02)872-0004, 010-7154-6986

첨단지구 LCE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유명메이커 온점

(금) 종합학원 임대
3층 265평 A급 시설 완비
전화 상담 요망

[각층분할가능]

병·의원 임대
3층·88평, 212평 안과, 피부과, 신검외과, 상해외과

학원 및 사무실 임대
4층·88평, 140평 각종 학원, 사무실 등

스카이 라운지
5층·222평 스카이라운지, 웨딩바, 레스토랑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 (02)525-0021,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AAA급 깨끗한 건물 임대매각
성업중인 골프연습장 임대
현금투자 최요지 임대매각

2005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 (극장식 웨딩홀) 만족도!! (음식이 맛있게 소문난) 1위업체 선정기념!!
예식비 대폭인하!!
예식장회원, 공무원, 경찰, 기타민공서, 각종기관체직원 예식비 20% DC 중...

이전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www.ccgwangju.co.kr

결혼, 회갑연, 침수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부페식으로...
예 약 ☎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삼부 우라병원에서 50m 직점. www.85858949.co.kr)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중개

← 급히 구합니다 →

[건물]
●병원건물이나 병원으로 임대가능 건물 현금15억
●인대 소득이 높은 상가 건물

[토지]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장성, 담양, 화순
●광산구 권리지역 압도, 본봉
●광동공단 2차단지 부근 토지
●투자 가치가 확실한 토지

← 급히 팝니다 →

-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용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 학원, 정비공장, 식당, 참고부지
- 일곡동, 자연부지, 424평, 250도로에 접, 평당200만원
- 미북동 김대중컨벤션앞 생선녹지 908평, 평당180만원
- 매월동 유통단지 택지 농산물 공공장소 261평, 평당600만원
- 카센타, 식당부지
- 광산구 소촌동, 영광간 350도로변, 140평, 평당280평
- 모텔·점간 대지 198평 건평600평 각실30개 대할10여 매도가25억
- 물류창고부지 자연녹지, 비아 인터체인지 인근, 2400평 평당75만원(분할가능)
- 창고 공장부지 210평, 평당 110만원 벽진동 주거지역
- 공장 창고부지(투자도가능) 관리지역, 광산구 양산동 1600평 대합차량 진입가능 평당14만원
- 임대부지·급호동, 대지 237평, 평당 135만원
- 광동 간 도로변 상가부지·61평 평당 750만원